

즐거움

편견을 깨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즐겁다. 올해 일흔한 살인 작가 윤석남은 만나는 사람에게 즐거운 충격을 주는 쪽에 속한다. 경기도 화성의 조용한 시골 작업실에서 10년 동안 나무를 깎고 그 위에 그리는 기분이 드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온 그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소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충격

ASSISTANT EDITOR K I M B O H W A

빈말이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정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1939년생 일흔한 살이예요. 나도 내가 일흔한 살이라는 게 안 믿겨요. 너무 싫어. 나무도 깎고 험한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손도 고우세요. 요새 한 열흘간 일을 못했어요.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말도 못해요. 한창 작업할 땐 옷 만지고 그러면 금세 다 보물이 일어오,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웃은 못 만져. 선생님은 따님도 자유분방하게 키우실 것 같아요. 응. 난 내 딸이 결혼할까 봐 걱정돼요. 집은 여기서 먼가요? 서초동, 혼자 트릭 운전해서 출근해요. 아침 11시까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죠? 그렇죠. 아침에 11시쯤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9시 반에 퇴근해요. 다 좋은데, 대중문화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는 대화에 끼여들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전혀 못 봐. 꼭 잘난 척하는 사람 같잖아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런다면, 라디오는 들으시네요. 그냥 켜놓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작품만 하니까. 이것만 최고인 줄 알고 여기서 이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이랑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 되죠. 그런 건. 그래서 책이랑 신문 열심히 봐요. <한겨레>는 작업실에서 보고 <조선일보>는 집에서 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읽으세요? 흔치 않은 일 같은데, 난 <한겨레> 독자예요. 근데 남편이 <조선일보>를 봐요. 둘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죠.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이예요. 지켜워요. 정치 얘기하면 막 싸우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도 남편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월급 조금씩 빼들려서 작업하고 그러는 거잖아. 하하.



월급이요? 생활비 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난 내가 주부로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여기에다가 모두 투자하는 거지. 선생님 프로필을 읽다가 가장 놀란 건, 마흔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 무언가를 놀랄게 잘할 때 재능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처럼 뒤늦게 하는 것도 역시 재능일까요? 내 생각에 재능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마흔 살이 되면 무언가 저물어간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안 그래. 마흔 살이 되면 잘 알 거야. 남편분이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에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윤석남이 어떨든 비둘기 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는 의지가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서예할 때도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새벽 서너 시까지 백장씩 써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림은 인생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했어요. 나 그림 그릴 건데, 앞으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주지? 했어요. 남편이 처음 서른여섯 살 때 서예 배우기 시작해서 마흔 살에 그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하라고 했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작가들 학력 본다면서 유학도 보내줬어요. 뉴욕으로, 친구 통해서 학교 다 알아봐주고. 따님도 있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완전 환영 혼자 자유롭게 일 년을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두말 않고 가겠다고 했어요.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말도 못하게 더럽고 좋아요.



거긴 미국이 아니라 뉴욕이예요. 솔직히 그림 공부는 안 하고 신나게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연극도 엄청 봤어요. 영어도 잘 모르면서, 할렘기도 사람들이 무섭다고 못 가고 그러는데 난 막 돌아다녔어요. 흑인이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고, 아아 나도 추레하게 하고 돌아다녀서 그랬을 거야. 호기심이 많으신가 봐요. 큰배 그런 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난 기본적으로 내가 겁을 먹지 않고 위험하다는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쪽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기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해서 할렘기도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유학 중에 딸이 한 번 왔는데 그런 데 데려갔더니 기겁을 했어요. 세계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뉴욕에 일 년 있던 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림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림을 좋아하게 된 건 확실하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 줄 몰라 찢찢대더라고. 근데 난 겁도 안 먹고 짝짝 그랬어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다행히 아버님이 소설가였기 때문에 집에서 예술을 하는 걸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버님은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동기를 주고 그런 건 아니예요. 정말 가난했어요. 6남매였거든요. 근데 집에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방 하나에 책이 꽂 차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싫었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닻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런 영향이겠죠. 문화적으로 풍부했던 거죠. 가난해도 난 부모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6남매를 혼자 기르신 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어요. 선생님의 첫 번째 드로잉 상대이기도 하셨고, 많은 영감을 주신 것 같은데, 전엔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절로 났는데,

이젠 좀 참아요. 돌아가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서른아홉 살 때 혼자 되셨어요. 그때 막내가 두 살, 어머니는 살림만 하고 세상 물정 하나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 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다 데리고 파는까지 갔어요. 당신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런 기억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에 하나라서 작품도 하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대표작인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의 유기견 모티브는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건가요? 신문에서 봤어요. 2003년에 일민 미술관에서 이애신 할머니의 기사를 봤어요. 1,025마리의 유기견을 데려다가 기른다는 기사를 보고 '아, 다음 작품은 이거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예쁘다 하고 기를 땀 언젠고 귀찮고 아프다고 하면 버리고, 두 가지 상반된 지점을 보여주는 게 애신 할머니인 것 같아요. 왜 나무라는 재료를 선택하셨어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1990년에 뉴욕에 있는 브롱크스 뮤지엄에 갔다가 <콜롬비아 작가들>전을 봤어요. 그중에 어떤 작가가 현 나무를 모아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인물 6명을 만든 게 있었는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나도 현 나무를 모아서 엄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귀국하니까 마음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허난설헌 생각이 갔어요. 무심코 앉아 있다가 집 뒤쪽의 감나무 밑에 있는데 가지가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걸 집에 주워와서 문방구에서 애들이 쓰는 조각도 세트를 사왔어요. 그 위에 사람을 그려서 나머지 부분을 칼로 살짝살짝 깎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허난설헌 같았어요. 존경하는 분이 예쁘다고 해서 선물했는데, 책장에 뒀더니 벌레가 들었대요. 지금은 썩고 없어요.



윤석남의 'Style Meets Art' 전시회 모습. 윤석남 선생과의 만남은 참가자들이 온스타일에서 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onmoviestyle.com/stylemeetsart)

사람을 단순한 선으로 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나무에 그린 개들은 얼굴이 디테일하고 눈이 또랑또랑해요. 왜 다들까요? 인물은 수십 년을 그렸어요. 선 하나만 그어도 느낌이 살아나는데, 사실 동물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디테일해야 안심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1,025마리의 개를 그냥 획획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2003년에 마음먹고 시작해서 2008년에 끝났어요. 만 5년 걸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보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1,025마리의 나무 개를,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학교제에서 후기작 전시도 다 하셨는데, 다음 작품 준비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말해도 될까?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해놓고 못 자릴까 봐 그래. 인물을 연구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이요. 그냥 진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 형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책이 될 수도, 조각이 될 수도,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고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게 어려워요.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도 마흔 살 될 때까지는 방 한 칸 마련하고 집이라도 마련하는 게 최대 목표였어요. 그리고 24평짜리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림 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30년이 걸린 거예요.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작가가 될 때까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마 확고하게 자신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뿐이예요. 인터뷰 다 끝났어요? 집에서 과일을 좀 가져왔는데 이제 같이 먹어요.